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SLC
수업	1. TOIEC SPEAKING(그룹): 토익스피킹 시험에 나오는 유형과 팁에 대해서 수업함 2. MMC (그룹):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수업 3. VOCA (1:1): 단어를 가지고 1대1 선생님과 이야기함 4. READING (1:1): 토익의 읽기 부분을 같이 공부함 5. FACE TO FACE(그룹): 회화, 듣기, 문법에 대해 배움
Activity	1. 클락 투어: 클락이라는 도시에 나가 대형 쇼핑몰을 구경함 2. 요트 투어: 요트를 타고 수영을 하는 체험을 함 3. 리조트 투어: 코랄 화이트 리조트의 수영장과 리조트 앞 바다에서 휴식을 취함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전반적으로 시원한 날씨였다. 굉장히 더울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얇은 긴팔을 입고 다닐 만큼 시원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에는 출기도 했다.
안전	치안은 나쁘지 않았다. 현지 선생님들은 SM이 있는 올롱가포 거리가 조금 위험하다고 당부해주셔서 지갑, 핸드폰을 잘 챙기고 다녔다. 이외의 치안은 안전한 것 같았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기숙사는 생각했던 것 보다 좋았다. 오티 때 교수님께서 많이 기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기대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넓고 깔끔

	<p>했다.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이틀에 한 번씩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다.</p> <p>다만, 바퀴벌레나 도마뱀 같은 벌레들이 자주 들어온다는 점과 물을 세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불편하였다.</p> <p>빨래 또한 이틀에 한 번씩 해주시지만, 빨래가 섞이거나 다른 색으로 물드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p>
식사	<p>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p> <p>학교 식당은 정말 맛있었다. 처음엔 조금 짜게 느껴졌는데 우선 필리핀 음식들이 조금 짜고 달기 때문에 금방 적응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한식이 많이 나왔다. 필리핀 음식이 기름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필리핀에 사는데 급식이 꼭 필요했다.</p> <p>그 외 외부 식당에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먹을 수 있었다.</p>
교통	<p>교통수단은 거의 FB와 택시였다.</p> <p>FB는 기다리는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택시는 콜을 부르면 바로 탈 수 있지만 비쌌다.</p> <p>그리고, 종종 FB나 택시 기사들이 돈을 불려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 흥정을 해야 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약 57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출국 전 사전 납부
필리핀 공항세	약 1,2800원	
식사	약 200000원	한 끼당 약 300~400페소
쇼핑	약 300000원	
마사지	약 30000원	한번에 약 300페소
수상액티비티	약 10000원	
all hands beach 입장료	약 12000원	
합계	5648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수로 챙겨야 할 것

- : 옷, 긴팔 (필리핀 가서 사겠다고 생각하면 안 됨. 맘에 드는 게 없거나 비쌌)
- : 방수팩 (물에 들어가는 일이 많음)
- : 비상약
- : 슬리퍼 (방에서 신발신고 다님)
- : 노트북 (mmc때 영상 편집해야함)
- : 썬크림 (해빛이 엄청 썸)
- : 모자

준비해야할 것

- : 학교에서 하라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었던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시설은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에 벌레들 때문에 매우 놀랐다.

방에도 들어오고 동침도 해보고 벌레를 잡느라 밤도 새웠다. 한 3일은 편하게 잠들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에도 익숙해졌다. 먹은 음식만 잘 치우고, 벌레 약을 사다가 대기시켜놓으면 벌레는 문제 없었다.

그리고 수업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 듯 너무 빠듯하고 정신없고 피곤했다. 장장 8시간동안 선생님들과 영어로 얘기하고 알아들으려 집중하다보니 입에서는 단내가 나는 것 같았고 기가 다 빠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일주일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학교에 적응도 하고 선생님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짓궂게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진지한 분들도, 친구 같은 분들도 있었다. 어느 정도 내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지자 수업도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수업 중간 중간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정이 들어갔다. 또한, 목요일에 진행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fun Friday, 주말 프로그램 등 덕분에 수업을 하는 와중에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지루하지 않은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되자 서로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기 헤어지는 것이 힘들었고, 1달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다.

이번 어학연수 기간 동안 수업 외에도 필리핀에서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필리핀 문화도 경험 할 수 있었고, 따뜻한 필리핀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